

성경과 인간의 성별: 하나님의 좋은 선물

인도자 지침서

엠 갈린다 버톤 지음
(M. GARLINDA BURTON)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실천하는 믿음·소망·사랑

성경과 인간의 성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인도자 지침서
엠 갈린다 버톤(M. Garlinda Burton) 지음

© 2016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에 판권이 있음,
475 Riverside Drive, room 1501, New York, NY 10115
www.unitedmethodistwomen.org

이 인도자 지침서와 여기 사용된 자료는 내용을 바꾸지 않고 상업적이지 않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다음의 문구가 복사된 내용에 들어가야 함:
“출처: 성경과 인간의 성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인도자 지침서
© 2016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에 모든 판권이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저작권이 있는 자료들은 이 책 안에 있는 것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복사할 수 없음.

모든 성경 인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표준 새번역을 사용함.
대한 성서 공회에 판권이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목적문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여성들의 공동체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체험하며, 창의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를 도모하며, 교회의 세계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있다.

우리의 비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전 세계 여성,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을 행동으로 실천한다.

비전의 실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 그리스도 안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한다.

우리는 성장할수 있도록 조직되며,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행동으로 이끄는 유연한 구조를 갖춘다

우리는 세계의 여성들과 소녀들이 공동체와 단체, 직장과 교회 및 공적기관의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킨다.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도록 자비로운 봉사와 옹호를 통해 불공정한 정책과 체제를 바꾸려 일한다.

우리는 적합한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여 개인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인도하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목 차

서론	5
첫 번째 모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말들 (CHAPTERS 1-2)	15
두 번째 모임: 바울, 교회 교부들, 그리고 육체에 대한 두려움 (CHAPTERS 3-4)	23
세 번째 모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전인적인 성윤리 개발 (CHAPTERS 5)	31
네 번째 모임: 수치와 비난을 사랑과 윤리적인 행동으로 교전하기 (CHAPTERS 6)	39
성별과 교회에 대한 다른 자료들	46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다른 자료들	48
저자 소개	49
부록 A: 경청자의 지침서	50
부록 B: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모자/녀건강관리 계획	52

서론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집필하면서 엘렌 에이 브루베이커(Ellen A. Brubaker)는 *성경과 인간의 성별(The Bible and Human Sexuality)*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강한 도전을 하고 있다.

브루베이커(Brubaker)는 우리들에게 성경 본문의 복잡성과 우리들이 그 본문을 이해하는 다양성,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수천년에 걸친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의 영향 등을 살펴 보라고 초청한다.

기독교인으로서 성별에 대해서 논의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일이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 주제를 피하거나 너무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라왔다. 우리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성적 경험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는 지에 대해서 이야기 할 어휘를 배운적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성, 수치, 공포, 고통, 그리고 좌절이라는 명제로 채색된 복합적인 개인적, 가족간의,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좋은 소식은, 브루베이커(Brubaker)가 말하듯이, 인간의 성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신 인간인 우리들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성별은, 가장 잘 사용할 때는, 관계를 증진시키고 강화시키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며 가까운 두 사람을 더 친밀하게 해준다고 그녀는 설명한다. 그리고 성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명백하게 또는 암시적으로 하나님의 좋은 선물임을 지적해 주는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동시에 브루베이커(Brubaker)는 믿음 그 자체처럼 성별에 관한 우리의 이해와 믿음도 성경 본문에만 뿌리를 박고 형성된 것은 아님을 인정한다. 그녀가 주장하듯이 “초대 교회의 교리들이 그 이야기의 일부이다. 우리가 성별과 우리 자신과 교회에 대해서 배워온 것이 동시에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배워왔는가?”

사실상, 모든 기독교 철학자들은(우리의 몸과 성적인 자아에 관한 명제들을 포함해서) 영적인 이원론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것은 다시 헬레니즘의 그리스와 로마의 풍습에 근거한 것들이다. *몸의 신학(Body Theology)*이라는 책에서 신학자 제임스 넬슨(James B. Nelson)은 이원론은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의 생각에는 이질적인 것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인간의 몸과 성별에 대한 이해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한다. 영적인 이원론의 교리에 따르면, 넬슨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삶은 두 가지 대칭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선하고 영원한 영과 일시적이며 타락하기 쉽고 타락하고 있는 육과 물질이 그것이다. 몸의 성적인 면은 죄가 자리잡는 특별한 중심지이다.”¹

브루베이커(Brubaker)는 동시에 이러한 철학자들이 우리의 개인 및 집단적인 성별에 관한 전통적인 갈등과 현재적인 갈등의 역사적인 면들을 살펴보고 있다.

나아가, 브루베이커(Brubaker)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결혼, 이혼, 성적인 경향성, 성정체성, 유산, 인신매매, 매춘 등의 문제들과 거기에 대해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교회와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재의 토론에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토론하는 일에 기독교인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공통된 언어를 찾을 수 있을까?

- 성경은 인간의 성별에 대해서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 성적인 관계에 들어간 (혹은 들어갈 것을 고려중인) 사람들이 지는 책임들은 무엇인가?
- 결혼한 사람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 인간의 성별을 토론하는데 건강하고 통전적인 언어와 신학적인 틀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지말라”는 명령 중에 어떤 것들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유효한가? 아니면 그런 것이 다 없어졌는가?
-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교회의 눈에 “좋은 성”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인신매매, 아동이나 취약한 어른에 대한 성학대, 성차별, 인종차별, 이성중심의 성담론, 그리고 권력 남용 등에 근거한 성적인 학대와 억압이 저지르는 개인적 및 제도적인 죄를 이야기하기 위한 우리들의 공동체적인 책임은 무엇인가?

세상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시대에 맞는, 납득이 가는, 사랑이 넘치는, 도전이 되면서도 적합한 말들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침묵이나 단순히 “하지 말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말들이 아니다—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에 다니거나 혹은 다니지 않거나 영적인 공동체를 필요로 하고 찾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는 성적인 존재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성은 누릴 수 있고 반면에 착취될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를 가까이 가게도 하지만 전체 믿음의 공동체를 분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치유와 온전함과 화해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불림 받았다.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면 성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이해하도록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이 이 교재의 목적이다. 마음을 열고 공부해 보길 바란다.

이 과목을 인도하기 위해 준비할 것

이 인도자 지침서를 읽는다. 엘렌 에이 브루베이커(Ellen A. Brubaker)의 기본 교재인 *성경과 인간의 성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The Bible and Human Sexuality: Claiming God's Good Gift)*을 참가자들이 읽고 성장하도록 도우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먼저 브루베이커(Brubaker)의 책과 이 교재를 수업을 인도하기 전에 미리 읽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구절에는 먼저 밑줄을 긋고 여백에 노트를 해 둔다. 요점을 적고 참가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예상 질문들을 적는다. 어떤 요점들은 이 교재 전체를 통해서 제시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신학적 과제(Our Theological Task)”의 부분을 *연합감리교회 교리와 장정 2012년판(The Book of Disciplin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2012)* 78-89쪽에서 미리 읽어 둔다.

동시에 이 교재에 수록된 비디오 자료들 일부를 미리 보고 책과 논문들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목적은 현재 교회와 사회에서 진행중인 토론 가운데 인간의 성별에 관련된 질문들과 문제점들을 잘 알아두기 위한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들은 성경 및 신학적인 이해와 우리의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성경과 설교와 가르침과 교회 학교에 아주 많이 의존하고 있다. 또 사회 윤리적 도덕적 문제인 성별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형성해 온 사회적인 궤적에 영향을 끼친 뉴스 및 오락 매체, 가족력, 그리고 습관들도 많이 의존한다.

동시에 인간의 성별, 동성연애, 외설물, 인신매매, 낙태, 그리고 결혼 등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연합감리교회의 공식 성명서도 읽고 잘 알아 두도록 촉구한다. 비록 그런 공식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목을 인도하는 준비를 하면서 연구도 하고 마음 속에서 먼저 참가자들이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질문들을 고려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해 보는 것도 좋다:

- 당신은 성적인 존재로서 스스로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 다른 사람과의 첫 번째 성적인 경험은 무엇이었는가? (키스나 보는 것, 만지는 것, 읽는 것 일 수가 있다-성관계가 첫 번째 성적인 경험일 필요는 없다.)
- 성과 결혼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이 그런 믿음에 영향을 주었나?
-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그런가?
- 인신매매, 매춘/성매매업 종사자, 포르노그래피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쟁의 수단으로서의 강간에 대해서는?
- 당신 자신의 성적인 삶에(아니면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성적인 삶에) 당신으로 하여금 수치, 좌절, 분노, 혹은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것들은 무엇인가?
- 당신의 기독교 신앙과 훈련은 당신 자신의 성에 대한 이해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당신의 성적인 학대나 착취에 대한 견해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나?

당신 자신의 믿음과 감정과 편견과 이해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나누거나 그것을 그룹 모임에서 강요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그래서는 절대 안된다) 본인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더 좋은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자신의 자의식을 일깨우는 방법 중의 하나는 첫 번 모임 하기 전까지 금식을 하는 것이다. (금식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 할 것을 권한다.) 금식은 자기 마음을 맑게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받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성별은 우리 대부분에게 쉬운 주제가 아님을 기억하라. 많은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성별과 성경과 개인의 믿음과 교회가 가르치거나 요구해야 하는-아니면 그래서는 안되는-것들에 대해서 혼돈스럽고 복합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증상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개인,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삶의 수세대에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시간에도 우리 삶에서 성별의 선함과 우리가 성을 잘못 사용할 때의 도전을 생각해 보라고 하신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러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 공부를 통해서 참가자들은 개인적이며 상호적인 이해를 더 깊이 하도록 초청된다.

나아가서 진정하고 정직한 기대를 통해서 참가자들은 성적인 착취, 성적인 폭력, 인신매매, 그리고 다른 부당하고 억압적인 하나님 주신 성별이라는 선물에 대한 잘못된 일들을 탐구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부터 희망과 용기와 정의와 격려를 기대하는 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다.

읽고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더 강하게 해주실 것이며 당신이 인도하는 그룹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토론을 하도록 인도하게 해 주실 것이다. 당신이 만나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매일 공부하는 동안 마음을 열고 용기와 긍휼과 지속성을 위해 기도하면서 시작한다. 의미있는 만남을 준비해 보길 바란다!

찬송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묵상하는 개인 혹은 그룹 모임 시간에 찬양을 하도록 한다. 아래의 찬양곡들은 예로 적었다. 다른 찬양으로 대체될 수 있다.

복음성가:

또 하나의 열매를
나의 안에 거하라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야곱의 축복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의 종소리
축복 송

찬송과 예배: 연합감리교회 한영찬송가

거룩 거룩 거룩(79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315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86장)
내 주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32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352장)
작은 불꽃 하나가(262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61장)
주의 빛 따르기 원합니다(102장)
창조주 하나님께(351장)
함께 주님의 떡을 나누세(236장)
항상 진실케(278장)

한영찬송가(Korean English Hymnal)

나 주의 도움 받고자(349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204장)

성경

이 성구들이 당신이 모든 피조물-인간을 포함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성경의 선조들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돌보는데 종종 실패 하였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신명기 7:9

사사기 11 (특히29-40절)

룻기 3:1-4:10

시편 136:1-3
 잠언 5:15-23
 잠언 30:18-19
 아가서4:3-6, 5:2-5, 7:6-10
 예레미야20:11-14
 스바냐 3:17
 마태복음 5:21-32
 요한복음3:16-17
 요한복음 13:25-35
 요한복음15:10-13
 로마서8:38-39
 고린도전서6:12-20
 고린도전서7:1-8
 고린도전서13:1-8
 에베소서 5:28-32
 베드로전서 4:8

모두가 학생이며 모두가 교사들

매주 예배를 드릴 때 테네시 주의 내쉬빌에 있는 홉슨 연합감리교회(Hobson United Methodist Church) 교인들은 이렇게 선포한다. “. . . 우리는 모두 배우는 자들이며 가르치는 자들이다. 우리 모두는 나눌 수 있는 은사들이 있기에 우리 서로에게서 배우고 듣기 위해 힘쓴다. 서로를 존경과 품위를 가지고 대한다.”²

이 네 부분으로 된 교재를 준비하면서 모든 참가자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이야기,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이야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름받은 이야기의 한 부분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은 인도자이자 교사인 당신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당신은 중요한 일을 한다. 서로 배우고 그룹이 전체로서 같이 발견하자는 초청의 손길을 내밀 때 더 많은 배움과 가르침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를 사용하고 추천된 활동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읽은 내용을 그룹에서 토론하면 더 잘 배우고 어떤 이들은 가만히 듣고 남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숙고할 때 더 잘 배운다는 것을 생각해서 준비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리 가진 선입견과 토론 주제에 대한 정해진 신조들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인도자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 당신은 모든 참가자들이 교재의 내용과 대화를 하도록 초청하고 그 문제들을 새로운 귀와 마음을 가지고 고려하면서 인간의 성별에 대한 문제에 대해 개인이나 교회가 직면한 복잡성을 이해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성윤리를 분명히 정립할 것을 권하는 것이다.

이 공부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두려움과 방어적인 태도와 불안과 심지어는 갈등까지도 유발할 것이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성별은 그저 이야기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환경에서 자라고 양육되었

을 것이다. 많은 참가자들은 성적인 주제들이 토론되는 주일학교나 성경 공부에 참여하거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협력 언약

처음 부터 어떻게 하면 모든 참가자들을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도록 할 것인가를 묻고 먼저 모범을 보일 준비를 하라.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는 “협력 언약(cooperation contract)”이라고 하는 것이다. 첫 날 참가자들이 모인 후에 우리 모두가 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도록 권장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리고 몇 사람들은 할 말이 많고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라.

“우리 모두가 학생이고 우리 모두가 교사다”라는 명제를 먼저 확인하고, 이 공부를 하는 동안 우리 모두가 많은 것들을 배울 것이라고 말한다. 큰 종이나 칠판 위에 다음의 문장들이 포함된 언약을 제시해 본다:

-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는 경청하고, 내가 말하기 전에 그들이 자기 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
- 나는 주어진 교재를 수업에 오기 전에 읽고 각 모임의 정해진 주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 나는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중요한 지체임을 전제하고 그들의 견해가 토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 나는 여기서 이야기된 것을 비밀로 지키며 말한 사람의 허락없이는 여기서 이야기된 내용을 나가서 전하지 않겠다.
- 나는 비록 다른 사람들이 계속 토론하고 활동하는 권리를 존중하면서, 나에게 너무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토론과 활동에는 불참할 권리를 보유한다.

어느 참가자든지 불편하거나 힘든 토론이나 활동으로부터는—질문이나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빠질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라. 그룹 인도자로 지정된 사람들은 토론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하지 않는다. 동시에 자기가 빠진다고 다른 사람들도 계속 토론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상기시켜 준다.

모든 사람들이 실제 언약에 다 자기 이름을 서명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대화가 활발하고 열기가 고조되고 속도가 빨라질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마음과 주의 깊게 들어야 함을 설명한다. 참여자들에게 이 언약에 서너가지 더 내용을 추가하도록 초청하고 서명하도록 한다. 개회 예배의 한 부분으로 서명순서를 넣어도 좋다.

모임 내내 이 언약에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한다.

이런 언약을 맺은 이후에도 아마 몇 참가자들은 더 말을 많이 하고 어떤 이들은 적게 하는 것을 눈치챌 것이다. 페이 윌슨(Faye Wilson)이라는 교육자는 다음과 같은 도움이 되는 말들을 제안한다.³ 토론의 초점을 흐리지 않으면서도 토론에 참여하는 이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아래에 적힌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다:

-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간 대답할 사람 몇 사람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 “이쪽 분들이 (혹은 이쪽 테이블이) 조용하신데요. 이 분들을 제외하고 싶지 않네요. 여기에 생각을 나눌 분 계세요?”
- “지금 그 생각을 30초 안에 결론을 내려주시지요.”
- “모인 분들의 이야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만 쪽 진전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을 나누고 싶은 분 계십니까?”

의견을 나누는 참가자들에게 감사하고 토론의 주요한 쟁점들을 정리한다. 그룹 참가자들이 자기 이야기가 전달되고 존중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윌슨(Wilson)은 언약에 서명하고 당신의 설명을 들어도 종종 한 사람이 토론을 장악하고, 다른 참여자를 누르고,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런 경우에 윌슨(Wilson)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한다:

- 그 사람 옆에 서라
- 눈을 바라보라
- 그 분에게 나누어준 내용에 감사하라
-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생각을 나누도록 글로 적어 보라고 한다.

특별한 색이 있는 접착제가 있는 스티커 종이들을 나누어 주고 모든 참여자들이 그 날의 토론에 대한 자신들이 하지 못한 생각을 적어 보라고 권할 수도 있다.

미리 준비할 것

첫 번 모임 이전에 안전하고 따뜻한 환영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준비:

1. 인간을 포함한 하나님의 창조를 축하하는 개회예배를 준비한다. 제안된 찬송가들과 찬양곡을 참조하라. 부르기 쉬운 곡들을 고른다. 모임에 모인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살펴보라. 사람들이 서로를 잘 알게 된 후에 부를 수 있도록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곡들은 남겨둔다. 찬송가들과 찬양곡들이 제안되었지만 다른 곡을 골라도 좋다-반주자나 찬양 인도자와 상의해서-필요한 대로 다른 곡을 골라쓴다.
2. 두 명의 참가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 이 모임 내내 “마음을 다하여 듣는 경청자”의 역할을 부탁한다. 이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 동안 함께 만나주고, 기도해주고, 들어주고 감정이 격해지거나 도전이 되는 주제가 나올 때 사람들을 추스리는 일을 하도록 시간을 내야 한다. (사역자들이 그룹의 참여자들이 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듣는이들과 지원자들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3. 당신의 모임 장소를 먼저 가보고 준비한다. 다시 말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배치는 의자들을 원형으로 놓거나 둥근 테이블에 둘러 앉는 것이다. 이 공부 모임은 소그룹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가능하면 각 모임에 5에서 8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방 배치를 할 때는 모든 참가자들이 어디에 앉든지 주된 칠판이나 비디오 화면이나 스크린을 볼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다.

4. 시청각 교재는 미리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배운다. 가능하다면 테크 도우미를 한 분 모신다. 포스터에 적은 내용이나 파워 포인트 자료, 화면의 글씨가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5. 가능하다면 매일 찬양 인도자를 확보한다. 그분들과 함께 부를 노래와 찬양곡을 미리 불러 본다. 그리고 반주 없이(*a cappella*) 노래하는 것도 좋다. 그럴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르기 쉬운 잘 아는 노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6. 테이블에서 모임 인도자, 기록 담당자, 전체 모임에 발표할 사람 등에게 할 일을 간단히 적어 준다. 이 역할은 모임 동안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맡도록 한다. 이 역할들은 방에다 붙여 놓든지 아니면 테이블에 비치해 둔다.
 - a. **모임 인도자**들은 자기 소그룹이 맡겨진 과제를 감당하도록 돕는다. 발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그들의 이야기가 전체 토론 동안 최소한의 시간을 차지하도록 한다. 만약 그룹 모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과제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모임 인도자는 강사에게 질문하고 전체 모임에서 답변 내용을 보고함으로써 답변을 정확히 들었는지 확인한다.
 - b. **기록담당자**들은 그룹의 구성원들이 말한 중요한 논점들을 기록한다. 개인적인 노트에 적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큰 포스터 종이에 적어도 좋다. 기록담당자는 이 적은 내용을 구성원들과 함께 검토하면서 그 내용이 발언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확인한다.
 - c. **발표자들** (기록담당자들이 이 역을 겸임할 수 있다)은 전체 모임에 발표하는데 부탁받은 대로 중요한 논점이나 전체 모임에서 지정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발표한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언제든지 그룹 구성원들에게 “내가 뭐 잊어버린 내용이 있습니까?”하고 물어보면 참가자들이 나누지 못했던 어떤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을 나눌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도움이 된다.

모임의 구성 내용

각 과는 두 시간 모임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간다:

- **핵심 문장:** 그 날 지정된 교재의 내용을 요약한 문장 혹은 직접 인용문.
- **성경의 가르침:** 그 날의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들. 이것은 그날의 개념 혹은 인용구의 기반이 되는 내용이 담긴 성경 이야기를 다 읽으라는 과제를 포함할 수 있다. (별도의 표시가 없다면 모든 성경 인용은 표준 새번역에서 따온 것이다.)
-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영으로 마음 모으기 (20-25 분):** 이 때 환영인사, 소개, 예배, 지정된 경청자들 소개, 그리고 그 날의 목표 소개 등을 한다. 첫 번 모임에는 소개할 사람도 많고 공동체 언약에 서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 **실제의 삶-삶의 실타래 (10-15분):** 참가자에게 오늘의 이슈(포함되어 있음)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소리내어 읽게한다. 그런 후(선택) 먼저 준비한 유튜브의 영상을 보여주거나 같은 이슈에 대한 다른 자료를 보여준다. (이것은 말로 전달하되 극적인 공연 형식으로 하거나, 뉴스 전달 형식으로 하거나, 일인칭 이야기로 할 수 있다.)
- **말씀과 그 말씀 (40 분):** 각 테이블에서 혹은 소그룹에서 그 날의 성경의 이야기나 개념들을 되돌아 보게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읽고 적은 노트들의 내용을 나누거나 읽은 내용을 요약해 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10-15 분은 전체 모임에 보고할 내용을 적는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묵상할 질문들:

- 교재를 읽을 때 어떤 주장이 제기 되었는가?
- 나에게 새로운 정보는 무엇이었는가? 이 시점이 되기 이전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 내가 다니는 교회의 예배, 성경 공부, 여선교회 모임 등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거나 토론되었던 마지막 기억은 언제였는가?
- 내가 자라면서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배운 것들은 무엇이며 내 의견 형성에 도움이 된 뉴스/오락 매체-책을 포함해서-들은 무엇이었나?
- 발견 (15 분): 각 그룹은 그 시간에 주어진 질문들을 사용해서 전체 모임에 발표한다.

추가 질문들 (선택사항):

- 그 모임의 한 사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것은 무엇이었는가?
- 그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여선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응답한다 (15 분):
 - 인도자는 주요 개념과 강의 내용과 어려운 질문들과 성경의 난해한 단어들을 미리 살펴본다.
 - 인도자는 각 참가자들에게 개별적인 기도 시간, 혹은 자기 묵상 일지를 쓰는 시간으로 10 분을 사용하도록 한다.
- 아이디어 벽 (5 분): 인도자는 모든 참가자들이 스티커에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적되,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개인적으로나 혹은 자기 교회, 자기 여선교회, 혹은 전세계 여선교회 (혹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어떻게 사용하실 지를 적는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더 넓게 사역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행동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점을 설명한다.) 노트의 몇 예들을 나눈다. 가령 다음의 예들과 같다: “소녀들(Girls, Inc.)이라는 사역단체의 지역 담장자들을 여선교회에 초청해서 우리 지역의 소녀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들어 본다.” “지역 남선교회와 함께 성/가정 폭력에 대한 페널 토의를 주관한다.” “다음 한 달 동안을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정오에 기도한다-아니면 매 금요일에 금식한다.”
- 과제들 (5 분): 다음 모임을 위해 지정된 독서 분량과 다른 과제들을 검토한다. 경청하여 들어줄 사람이 있는 지 확인하고 준비물들을 점검하고 모임 중간에 참가자들이 찾아볼 수 있는 추가 자료들에 대한 안내들을 해 준다.
- 마치는 예배/묵상 (10 분): 미리 두 사람에게 성경 봉독과 찬양 인도를 부탁한다. 피아노나 기타가 있으면 반주할 사람에게도 부탁한다. (어떤 경우에는 몇 명의 봉독자와 그룹별로 하는 교독문이 사용되기도 한다.) 예배 마칠 때 광고는 생략한다. 참가자들이 경험하는 내용의 맨 마지막에는 성경 구절이나 찬양의 구절이 머리에 맴돌수 있도록 해서 사람들을 파송하도록 한다.

자료들과 준비물들

매 시간 다음 준비물들을 비치하도록 한다.

- 성경들 (표준 새번역과 개역개정을 포함하여 적어도 세 가지 다른 번역본들)
- 성구사전 (토론 중에 언급되는 성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연합감리교회 교리와 장정 2012년판

- 연합감리교회 결의문집 2012년판
- 찬양곡집, 찬송과 예배 와 새로 나온 복음성가, 다른 찬양집들 포함
- 이름표
- 큰 종이 (가능하면 벽에 붙일 수 있는 접착제가 미리 발라진 것)
- 단단한 큰 종어로 “아이디어 벽”을 만들 수 있는 것
- 마커들
- 크레용이나 색연필들
- 참가자들이 색칠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조각(적어도 5X5 인치=가로 세로가 1.5미터)이 있는 퍼즐 (선이 그려진 것) 복사판
- 볼펜들
- 여러 색의 접착되는 스티커 스타일의 인덱스 카드
- 작은 접착되는 스티커 노트패드
- 매스킹 테이프
- 손거울은 각 테이블에 하나씩 (참가자들이 적어도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것)
- 압정
- 가위
- 실
- 못핀
- 옷감, 십자가, 초 등 예배당/단 장식을 해 놓는데 필요한 것들.

후주

1. 제임스 비 넬슨(James B. Nelson). *몸 신학(Body Theology)*. 웨스트민스터/존 나스 프레스, 루이빌: 켄터키, 1992, 30쪽.
2. “홉슨 공동체 언약(Hobson Community Covenant),” 홉슨(Hobson) 연합감리교회, 내쉬빌, 테네시.
3. 페에 윌슨(Faye Wilson),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선교학교 전체 모임에서 나는 변혁을 위한 배움(Transformative Learning), 2014년.

첫 번째 모임

하나님의 말씀 . . . 그리고 그에 관한 말들

1장과 2장

핵심 문장

“하나님은 성별과 사랑과 출산의 과정을 창조하셨다. 우리들은 서로 다른 의견으로 계속해서 논의하고 분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는 신자들을 서로 분리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선과 악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좋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브루베이커, 2장)

성경의 가르침

“그대의 젖가슴은 나리꽃 밭에서 풀을 뜯는 한 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몰약 산으로 가려 하네. 유향 언덕으로 가려 하네.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아가서 4:5-7, 표준 새번역)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이른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마태5:27-28, 표준 새번역)

이 과의 목적

- 성별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는 것.
- 성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의 복잡성을 찾아보고, “나쁜” 성행위를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 보는 것.
- 성별에 관한 우리 자신의 느낌과 이해를 살펴보는 것—그리고 그런 믿음과 느낌이 어디서 오는 지를 살펴 보는 것.

준비

- 찬송가와 예배자료집 (제안된 찬송가와 찬양을 포함한 것)을 각 테이블에 놓거나 아니면 껌도나 파워포인트로 전체가 볼 수 있게 할 것.
- 퍼즐 복사한 것과 가위를 각 참가자에게 하나씩 준비할 것.

- 옷감, 십자가, 초, 그리고 다른 장치들을 설치해서 예배 처소를 마련할 것.
- 큰 두꺼운 종이나 갱지를 테이프로 붙여서 “아이디어 벽”이라고 그 위에 써 놓을 것. 여기에 참가자들이 생각을 적어서 붙이고 전체 모임 내내 자기들 생각을 발표할 것임.
- 방에 미리 테이블과 그 주변에 의자가 놓여 있지 않으면 모임을 하도록 의자를 배치할 것.
- 이름표를 만들든지 아니면 참가자들이 자기 스스로 이름표를 만들도록 각 테이블에 마커와 이름표를 충분히 가져다 놓을 것.
- 각 테이블에 노트카드, 펜, 색연필, 퍼즐 복사한 것, 못핀, 그리고 각 역할 담당자가 할 일을 적은 인쇄된 종이를 놓아둘 것.
- “실제 삶”의 이야기를 복사해서 정해진 시간에 참가자들이 그것을 읽도록 부탁해 둘 것
- “성경 속의 성(Sex in the Bible)” 비디오 제 5부를 준비해 놓을 것
(https://youtu.be/j5 0e7To?list=PLDE_hlOiWJM2QPGbGJ4EZnrP948Gr7khf)
- 시작하는 예배와 마치는 예배에 성경을 봉독할 2 사람에게 미리 부탁해 놓을 것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영으로 마음 모으기 (20 분)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자리에 앉으라고 한다. 자신을 소개한 후에 각자 테이블마다 5분에서 7 분정도 걸려서 자신들을 소개하고 이름표를 만들라고 부탁한다.

오늘의 주제를 본인의 말로 소개하거나 이 선교학교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 여선교회가 내 건 요점을 따라서 이야기한다:

인간의 성별은 삶에 근본적인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들은 우리 삶의 이런 면에 있어서 성실하게 살고자 한다. 성경은 우리의 지침이지만 성경은 종종 모순되거나 혼돈을 주거나 해로운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 과는 히브리어 성경과 신약 성경 둘 다를 살펴 보면서 인간의 성에 관한 통찰을 얻고자 한다. 이런 탐구를 통해 참가자들은 신실한 삶을 위한 지침을 얻기 위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지 않은 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동시에:

- 친구약 성경을 살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당시 문화적인 맥락에서와 오늘날의 성에 관한 “큰 그림”에 비춘 메시지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 인간의 성별에 관해서 수세기에 걸친 가르침과 관습과 메시지를 탐구하면서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지도 살펴볼 것이다.
-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룩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이해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 성을 숭배 하거나 저주하는것을 포함하는 현재의 문제들과 그런 것에 기여하는 요소들 (광고, 인신매매, 권력, 수치, 경제 등)을 토론할 것이다.
- 생식 건강의 문제들과 불임의 문제, 가정 폭력, 성운리 등의 문제들을 토론하면서 사역과의 관계, 동성연애, 결혼, 전쟁 수단으로서의 강간, 성매매와 인신매매 등 전반적으로 성별에 관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토론할 것이다.¹

주의 사항: 인도자는 주제들과 활동에 따라 어떤 참가자에게는 그 것들이 고통스럽거나 불편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특정 활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불참”이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참가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 동시에 특정 활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면 소그룹 전체가 그 주제를 생략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불참”도 허용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이 공부를 하는 동안 “불참”에 대한 권리를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될 지도 모른다.

잠시 멈추고 전체 그룹을 예배로 초청한다.

지정된 봉독자들을 부탁한 자리에 서게 한다. 첫 번 사람은 아가서4:1-5을 읽는다. (그 본문을 읽는 동안 제단 위에 있는 초를 하나 점화한다.)

두 번째 봉독자는 마태복음 5:27-30을 읽는다. (이 본문을 읽을 때 둘 째 초를 켜다.) 잠시 기도한다: 모든 좋은 것을 만드신 놀라우신 창조주님,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겸손히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성적인 자아에 대한 축복과 동시에 우리의 성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듣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존중하는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부인들과 그 부인들을 통한 많은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상의 부모님들에게는 우리는 동역자로 묶여진 두 사람만을 봅니다.

우리의 역사는 모든 육체적인 것을 나쁜 것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동시에 아가서는 두 사람 사이의 성적인 즐거움을 축하하는 성경 구절임이 분명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적인 면을 존중하면서도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할 수 있는 지, 어떻게 우리가 취약한 이들에 대한 성적인 학대와 착취를 막을 수 있는 지, 어떻게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실 때는 선물과 동시에 책임감을 주셨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지... 더 많은 것을 알기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빛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 함께 일하려고 하오니 저희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제의 삶—삶의 실타래 (10 분)

다음 내용은 내가 인간의 성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고 이야기를 할 때 나에게 하나의 관점을 제공해 준 개인적인 경험이다. 이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읽어보라:

약 십년 전, 나는 연합감리교회 관련 기관에서 성윤리와 성적 학대 및 성적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교회 정책에 대하여 워크숍을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는 발표를 시작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성별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가진 우리의 일부이며 성적인 행동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올바른 환경에서라면--심지어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덧붙여서 모든 참가자들은 성적인 행동에는 한 몫을 했다고 말하면서 적어도 우리를 나아주시는 어머니는 우리를 임신하기 위해서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바로 그 때 한 참가자가—약 50대의 여성—벌떡 일어나더니 훌쩍 나가버렸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바로 인사과로 달려가서 불평을 하였다. 그 날 늦게 내가 그녀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녀는 아주 불편해 했고 화가 났지만 마침내 나에게 말을 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섹스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하는 방식은 우리 어머니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녀는 분노하였지만 설명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섹스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했고 우리 아버지—그녀의 남편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것이며 나의 출생은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섹스가 아니라구요.” 그리고는 그녀는 종종히 사라졌다.

나는 그 일화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성별과 정의와 믿음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할 때 좋은 지침이 되어 주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맥락 속에서 성별에 대한 토론을 꺼려하고 그 단어만 들어도 어색해 한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대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질문을 할 용의는 있다. 한 좋은 예가 지난 4년 동안 연합감리교회 총회연대사역협의회(Connectional Tab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동성연애에 대하여 다양한 구성원들의 느낌과 신학적인 견해와 문화적인 시각들을 놓고 일련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거기에 참여한 이들은 한 견해나 다른 견해가 “옳다” “그르다”를 설득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성경 해석과 사랑과 은혜와 그들의 교회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으로 고민하는 지를 서로 나누기 위해 모였다. 이런 대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겸손한 첫 걸음이며, 성격상 고백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목소리를 허용하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렬한 추종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살려 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것이라고 전제한 모임이었다.

—엠 갈린다 버튼(M. Garlinda Burton)

비디오 클립, “성경에 나오는 성(Sex in the Bible)” 제 5 부를 보여줄 것 (07:10에서 멈춘다).²

말씀과 그 말씀 (40 분)

각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의 퍼즐과 색연필을 준비하라고 부탁한다. 그들에게 자신의 성 역사, 경험, 그리고 교회로부터 배운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서로 공격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신이 성별에 대해서 믿고, 하지 말도록 배운 것 또 해도 된다고 배운 것들을 큰 소리로 짧은 구절로 이야기 하도록 한다. 참가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렇게 물어본다:

- 성적인 활동을 하는 “적당한” 나이는 몇 살이라고 배웠습니까?
- 20살 때 당신은 누가 성관계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까?
- 여자들은 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 남자들은 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 주일학교에서나 설교자들이 성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다면 그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무엇이 올바르고 “좋은” 성적인 접촉입니까? 무엇이 “나쁜” 성을 구성합니까?
-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성적인 접촉, 성적인 행동, 혹은 누가 성관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 무엇이 한 사람의 성적인 만남을 “부끄러운” 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성별에 관한 한 가지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성은 선물이다.” “성은 거룩한 것이다.” “나는 성적인 관계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평생 한 사람하고만 갖는 것이라고 배웠다.” “나는 내 몸을 성전으로 여기라고 배웠다,” 등등), 그 사람에게 자기 퍼즐의 한 조각에 색깔을 하도록 한다. 이것은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성을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선물로 연결하는 지 아니면 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지를 알게 해 주는 통찰을 얻기 위한 것임을 설명한다.

이 활동을 하기 전에 누구도 왜 자신이 퍼즐의 한 조각을 색깔하기로(혹은 칠하지 않기로) 결정했는 지를 밝힐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라.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른 시각과 배경과 가정교육과 심지어는 성별에 대한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왔음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그 퍼즐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동시에 우리를 가운데 어떤 이들은 우리의 느낌과 역할과 우리의 성적인 삶(혹은 성적인 삶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부끄러워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적인 자아를 어떻게 보시고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 활동의 목적은 긍정적인 느낌들, 역사들, 가르침들, 그리고 각기 다른 행동들을 보고 우리가 함께 테이블에서 이야기할 때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에 대해서 같은 식으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민감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가자들이 자기들의 퍼즐을 자르고 색깔하는 것을 마치면 그들에게 그 조각들을 테이블 혹은 원 중앙에 두라고 부탁한다. 각 테이블에 있는 그룹들에게 아가서 4장을 돌아가면서 읽게 한다.

각 테이블에서 기록하는 사람들은 같은 색의 인덱스 카드를 사용하도록 부탁한다. 각 테이블에서 각자가 성경을 읽는 것을 들을 때 무엇인가 새로운 것, 재미있는 것, 혹은 도전이 되는 것을 들었으면 이야기해보라고 권한다. 기록자들은 이것들을 적었다가 한쪽에 따로 둔다.

이제 각 테이블에서 브루베이커(Brubaker)의 책 1 장을 토론하되 특히 “아가서/솔로몬의 아가”와 “인간의 성별과 이스라엘의 발전” 부분과 2장에서 “탄생 이야기들”과 “예수-사회적 부적응자의 생애와 사역” 부분을 토론한다.

참가자들에게 테이블 리더의 인도에 따라 다음의 질문들을 토론해 보라고 한다. 기록자는 전체 모임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기록 한다.

1. 성경에 의하면 성의 목적은 무엇인가?
2. 구약 성경에서 당신의 “좋은” 성이라는 개념을 긍정하거나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랐던 규정들이나 행동들은 무엇인가?
3.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랐던 규정들이나 행동들 중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성이라는 개념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은 무엇인가?
4.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만약 변화가 있었다면, 우리는 무슨 변화를 보았나?
5. 브루베이커(Brubaker)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 중 당신에게 새로운 정보는 무엇인가?
6. 교회나 여선교회가 성별에 대해서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것들은 무엇인지?

이 활동이 끝나기 약 10 분 전에 기록자에게 참가자들이 나눈 기록 내용을 검토하게 하고 전체 그룹에서 나눌 준비를 한다. 테이블 사람들이 말한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기록자에게 적어도 한 사람 이상 혹은 대다수가 나눈 내용이나 아이디어를 먼저 보고하도록 제안한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생각들이나 내용도 적어서 보고할 수 있다.

발견 (15 분)

기록자들에게 발표하도록 권한다. 한 발표자가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한다. 한 테이블에 한 사람씩 전체가 나눌 때까지 계속 돌아가도록 한다. 만약 시간이 더 있으면 개인적으로 나눌 내용이 있는지 물어 본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한다 (15 분)

다음에 적힌 중요한 개념들을 책에서 살펴본다:

- 성별에 대한 이해, 우리들이 얼마나 편하게 그 주제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지, 우리의 자라온 배경, 삶의 경력, 성적인 학대의 경험 여부, 그 주제를 교회에서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따라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지점에서 출발한다.
- 성경은 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축복과 동시에 저주를 담고 있다. 성경에는 동시에 일부 다처제와 혼외정사(아브라함은 하갈과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 강간, 성적인 학대 등이 구약에 적혀 있다. 예수님은 간음과 간통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셨지만 동시에 “죄”보다 더 강력한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정죄를 당하는데 “그와 함께 죄를 지은” 남자는 왜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다 (요한복음 8:1-11).
-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이며 우리가 성적인 존재라면 우리의 성별은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방식대로 어떻게 품위있게 성을 즐기고 실천하며 누릴 수 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아이디어 벽 (5 분)

참가자들에게 자기 묵상 일지를 쓰거나 개인적인 기도를 하라고 초청한다. “아이디어 벽”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그곳은 교단이나 여성교회가 교회에서, 연회에서, 혹은 전교회적으로 해야 되거나, 말해야 되거나, 만들어야 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 성적인 문제들과 성의 확대와 성적인 잘못 등등에 대해서 해야될 일에 대해 제안할 내용을 적어서 붙이는 곳이라고 이야기한다. 구체적인 예들을 준다: “우리 지역의 소녀들(Girls, Inc.)이라는 단체를 초청해서 우리 지방의 십대 소녀들이 직면하는 성적인 문제에 대하여 여성교회 모임에서 이야기하도록 한다.” “교회 안에서 성적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전교회적인 교재를 만든다.” “성/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매 주 금요일에 남선교회원들과 함께 금식을 한다.” “우리 교회를 위해 결혼의 풍요함을 위한 수양회를 하면서 성적인 친밀감을 주요 주제로 삼는다.”

참가자들에게 3분정도 남았을 때 자기 아이디어를 붙이는 일을 마무리하고 자리로 돌아가 앉으라는 신호를 준다.

과제들 (5 분)

참가자들에게 다음 모임을 위한 숙제들과 읽을 내용, 즉 부르베이커의 책 3장과 4장을 상기시켜 준다. 그들에게 퍼즐 조각을 제단으로 가져 오라고 한다. 그것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견해들과 경험들의 다양함을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참가자들에게 동시에 누가 상담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언제 만날 수 있는 지도 알려 준다. 통상적인 광고나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이때 광고한다. 모임은 마지막 예배로 마쳐야 한다.

마치는 예배/묵상 (10 분)

참가자들을 다 모으고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 보내졌습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특별한지, 얼마나 놀랍게 지어졌는 지를 알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자 이제 찬양합시다. 복음 성가 “축복의 노래.”

교독문

찬양이 끝나면 예배 인도자가 이 마치는 교독문을 인도한다:³

인도자: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다함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인도자: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다함께: 우리가 여기 올 때의 그 모습대로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현존하심 가운데 서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도자: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가자들에게 서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도록 초청한 후에 ‘다음 모임에서 만날 때까지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한다.

후주

1. 엘렌 에이 브루베이커(Ellen A. Brubaker), *성경과 인간의 성별(Bible and Human Sexuality)*. 뉴욕: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2016
2. 허락을 받아 사용함. 성경속의 성(Sex in the Bible), 제5부, 유튜브(YouTube) 비디오, 09:59, “바보들의 왕(Slyfox)” 채널 1번에 2008년 7월 3일자로 포스트된 것
https://www.youtube.com/watch?v=j50e7T-8o&feature=youtu.be&list=PLDE_hlOiWJM2QPGbGJ4EZnrP948Gr7khf.
3. 브라이언 렌(Brian Wren)이 2004년에 작성한 2012년도 총회를 위한 예배 자료집 *예배와 찬양(Worship & Song: Worship Resources for the 2012 General Conference)*, 197번(내쉬빌: 아빙돈 프레스), 201쪽. 인도자 지침서를 위해 개작됨.

두 번째 모임

바울, 교회 교부들, 그리고 육체에 대한 두려움

제 3장과 4장

핵심 문장

“때때로 바울은 그의 이전 해석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바울은 인간이었고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자기 문화와 상황에 속한 사람이었다. 동시에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주신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었다. 아마도 이러한 새로운 통찰들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만났던 여자들의 지도력에 기인한 것일 것이다.” (브루베이커, 제 3 장)

성경의 가르침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27-28)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에베소서 5:22-23)

이 과의 목적

- 바울의 글들을 찾아서 바울이 성별에 관해서 가르친 내용에 영향을 미친 이해관계나 문화적인 상황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보여주는 단서들을 찾아본다.
- 어떻게 다원주의와 이념적인 논쟁들과 문화 전쟁과 비기독교적인 철학들과 “육”과 “영”에 대한 상충하는 믿음들이 우리의 성별과 성윤리에 관한 기독교적인 이해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 성별과 성적인 “죄”에 관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검토한다.

준비

- 각 테이블에 찬송가와 예배 자료집(우리가 제안한 찬송과 찬양묵음)을 놓거나 껌도로 보여 주거나 파워포인트로 보여준다.
- 예배 처소를 준비한다.
- “아이디어 벽”을 그 전에 치워 두었으면 다시 세워놓는다.
- 실을 잘라 테이블 위에 놓는다 (2 피트, 약 60센티미터 정도). 한 사람이 하나씩 집어갈 수 있게 하되 몇 개 여분으로 둔다.
- 각 테이블에 같은 세 가지 색의 스티커 노트를 놓는다.
- “실제의 삶”의 이야기 복사본을 놓고 참가자 중에서 정해진 시간에 읽을 사람을 정한다.
- 비디오를 준비해 둔다. 존 프랭크: “성경의 무오류성에 대한 다섯 가지 견해(John Franks: Five Views on Biblical Inerrancy)” (<https://youtu.be/zwaqjsBbBJE>).
- 파워포인트로 토론 질문들을 준비해 두거나 아니면 갱지에 써놓거나 포스터에 써서 붙여 놓을 수 있게 한다.
- 참가자 한 사람에게 개회 예배 중 봉독할 부분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폐회 예배 중에 봉독할 것을 줘서 각각 맡은 부분을 낭독하도록 한다.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영으로 마음 모으기 (20 분)

참가자들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한 후, 각자에게 두 장 혹은 세 장의 스티커 노트를 나누어 준다. 세 가지 질문마다 어떤 색을 사용할 지 정한다. 그리고 성경을 보거나 성경 구절을 전화에서 찾거나 이웃에게 묻지 말고 다음 질문의 답을 _____ 색의 노트에 적으라고 말한다.

- 예수님이 성별에 관해서 말하신 것 중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하나만 적어 보라. 성경 어디에 있는 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라.
- 바울이 성별에 관해서 말한 것 중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하나만 적어 보라. 성경 어디에 있는 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라.
- 성경에서 성별에 대한 언급이 있는 구절이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적어보라. 성경 어디에 적혀 있는 지 그 구절이나 부분 혹은 책 이름을 기억해 보라.

다른 참가자들과 같은 색의 스티커 노트를 교환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방을 돌아다니며 움직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그 노트를 묵상하면서 조용히 그 내용을 읽어 볼 것이다. 참가자들에게 그 스티커 노트를 다시 사용할 것이니 간직하라고 말한다.

개회 찬송으로 “항상 진실케,” 찬송과 예배: 연합감리교회 한영찬송가, 278장을 부른다. 처음 봉독자에게 다음 센터링 기도를 인도하도록 부탁한다.¹

인도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큰 은혜로 저희들을 축복하시옵고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다함께: 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인도자: 저희들의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 간구 하옵기는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꾸밈이 없고 진실하며 갈망하는 곳에 저희들을 서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참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다함께: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혀 주시고, 우리를 생명수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우리 심령의 깊은 곳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인도자: 오 주관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함께: 오 계시의 하나님, 인도하소서. 우리는 듣겠나이다. 아멘.

실제의 삶—삶의 실타래 (10 분)

존 프랭크: “성경의 무오류성에 관한 다섯 가지 견해들(John Franke: Five Views on Biblical Inerrancy)”이라는 비디오를 보여준다. (<https://youtu.be/zwaqjsBbBJE>).² 이 3분짜리 비디오는 장로교 신학자가 만든 것인데 이 비디오의 저자 중의 한 사람이 성경의 무오류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한 두 사람에게 성경의 무오류성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하도록 부탁하고, 성경의 무오류성을 믿는 사람과 그 개념에 반대하는 사람 둘 다에게 기독교인으로 어떤 도전이 있을지를 물어본다.

오늘의 주제를 자신의 말로 소개하고 다음 요점들을 포함한다:

- 가장 최초로 쓰여진 성경들은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들이었다. 학자들이 바울이 쓴 것이 확실하다고 믿는 바울의 서신들은 주후 50년 경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복음서는 주후 70년이 되기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40년이 지난 후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지에 관한 우리의 견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³
-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과 밖에서 경험하는 것과 같은 고민들을 가지고 씨름했다. 거기에는 동성애자들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바울이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들이 다투기도 하였고, 결혼은 했지만 성관계가 없는 부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성관계를 하는 부부도 있었다.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쓴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기독교 공동체에 질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도 있었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고, 다른 종교를 따르면서도 기독교와 자기들이 이미 아는 것을 혼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믿음의 경험에 대해서도 처음인 사람들도 있었다.
- 남성과 대비한 여성의 가치, 혹은 권력있는 이들과 대비한 노예들의 가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초대 교회 교부들부터 교회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들이었고 인간들은 종종 가장 힘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드는 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와 사회에서 힘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논쟁적이셨다. 누구도 자신이 가장 앞서 있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들은 어떤 철학이나 어떤 해석이 제시될 때 과연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 브루베이커(Brubaker)의 다음의 글을 살펴 보라:
 “수세기 동안, 성경이 성별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지에 대한 수많은 해석이 있어왔다. 어떤 이들은 성경이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들과 가르침들을 하나님이 직접 받아 적으라고 불러 주셨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저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라고 믿는다. 영감은 오랫동안 걸쳐서 성경을 읽어 온 사람들에 의한 추후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개신교 종교개혁의 일부분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의미를 찾는 자유와 책임에 대한 것이었다.”

참가자들에게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 지 물어 본다. 2분 내지 3 분을 쓴 후에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전체 그룹을 불러 모은다.

말씀과 그 말씀 (40 분)

5초 정도 침묵을 하면서 참가자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들은 것을 묵상하게 한다.

각 테이블에 있는 팀 구성원들에게 원형으로 앉으라고 부탁한 다음 테이블의 각 자리에 누군가가 쓴 스티커 노트를 붙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쓴 스티커 노트 앞에 앉으라고 말한다. 각 테이블의 참가자들에게 실을 한 오라기씩 준다.

그룹 참가자들에게 브루베이커의 책 제 4 장을 살펴보고 토론할 시간이 약 20분 정도 있다고 말한 후에 토론이 진행되도록 각자가 색 스티커 노트에 답을 쓴 그 질문들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 그들에게 성경에 있는 답을 찾아 보거나 컴퓨터, 태블릿, 전화에 있는 검색 기능을 사용해서 답을 찾기 전에 자기 테이블에 있는 스티커 노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지를 먼저 살펴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스티커 노트에 있는 답들이 정확한지 아닌지, 적당한지 아닌지, 아니면 아주 반대되는 것인지 등을 토론하고 기록 담당자는 각 구성원들의 관찰을 적도록 한다. 다음의 성구들을 살펴 보라:

- 마태복음 19:1-9 (예수님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 논하심),
- 히브리서 13:4 (결혼을 존중할 것),
- 고린도전서 7:3-5 (서로의 성적인 욕구를 채워줄 것),
- 로마서 13:13-14 (방탕한 성생활을 나무람),
- 마태복음 5:27-28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한 것임).

3분이 남았을 때 각 그룹에게 정리하라는 신호를 준다. 그리고 각 그룹의 인도자는 스티커 노트를 가지고 나오는데 부정확하거나 반대되는 것으로 알려진 정보가 적힌 것들을 교실 앞으로 가지고 나오게 한다. 그것들은 “잘못된 정보”라고 적힌 깡지에 붙인다.

그리고 각 그룹들에게 실을 가지고 비슷한 활동을 하도록 한다. 한 사람을 한 그룹에서 정해서 브루베이커의 책 4장을 이용해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보도록 한다.

- 초대 영지주의 기독교인들, 가령 폰투스(Pontus)같은 사람들은 성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여성에 대해서는? 그들은 성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보았는가? 여자들은

남자들처럼 지성적이고 기본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았는가? 여자들이 이성적이고 상호적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다고 보았는가?

- 어거스틴은 독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나?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와 사람들과 가르침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연결되는가?
- 아래에 적힌 목소리들을 성경의 가르침과 성별과 사랑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토론에 참여시킬 때 어떤 차이가 나는가?:
 - 여성의 목소리를 참여시킬 때는?
 - 유색인종의 목소리를 참여시킬 때는?
 - 미국과 유럽 이외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참여시킬 때는?
 -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참여시킬 때는?
 - 동성연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성에 대해 의문하는 자, 혹은 자신을 그런 사람들의 지지자라고 생각하는 이들 (부모, 친구, 형제자매, 기도동역자 등)의 목소리를 참여시킬 때는?
- 위에서 언급한 가르침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오늘날 믿고, 말하고, 행동하고, 토론하는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각 그룹에게 자기들이 정확한 정보라고 동의한 스티커 노트를 검토해 보고 그것들이 교회가 믿고 행하는 내용에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고 강화시켰는 지를 간략하게 토론해 보라.

마무리 하기 위해 3분 남았다는 신호를 보낸다.

발견 (15 분)

각 테이블의 보고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에 한 가지 답변들을 보고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며 성적인 존재로서의 정체성과 기독교인들이 갖고있는 성별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정확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정보를 나누도록 한다. 이러한 답변이 한 가지씩 나올 때마다 그 테이블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인도자의 팔에 실을 묶도록 한다. 이 과가 끝날 때 쯤이면 인도자의 손목에 몇 가닥의 줄이 매달려 있을 것이다.

인도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목에 실을 몇 가닥 묶게 될 것이다. 연합감리교회의 가르침이 수세기 동안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 이전의 신학적인 갈등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욕구와 사회적인 위치의 현실-성, 성별, 사회 혹은 경제적인 신분, 교육정도, 결혼 상태, 그리고 메시지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등-에 영향을 받아 왔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고려되어야 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도록 한다.

참가자들에게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개별 교회들이나, 철학자들이나, 교회와 사회에서 진행된 논쟁들이나, 우리 개인의 삶에서 배우고 들은 것들 때문에 종종 불분명한 생각을 하거나, 혼동되거나, 편견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 과가 끝날 때까지 손목에 맨 실을 그대로 간직한다.)

이렇게 항상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계속 들으려고 할 때 같은 말을 연합감리 교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연합감리교회 교리와 장정 2012년판**에 있는 사회 신경(Social Principle)에 우리의 신조의 일부가 아래와 같이 적혀있다:

- “우리는 성경대로 남자와 여자가 공통의 인간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믿는다.” (9161E)
- “우리는 성이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주신 좋은 선물인 것을 믿는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거룩한 선물의 책임있는 청지기가 될 것을 촉구한다.” (9161F)
- “우리는 결혼에 있어서 남자와는 다른 기준을 여자에게 적용하는 사회적 관습을 배척한다.” (9161B)
- “모든 사람이 결혼 여부를 떠나 성적인 존재이지만 성관계는 일부일처 이성간의 결혼 안에서만 가능한 언약 관계임을 믿는다.” (9161F)
-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가 기독교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며 동성애의 실천을 묵인하지 않는다.” (9161F)
- “폭력적이며, 존중하지 않는, 학대적인 성적 표현은 하나님의 좋은 선물인 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9161H)
- “우리는 성의 모든 상품화와 착취를 개탄하며 그 결과 인간성이 저하되고 격하되는 것을 개탄한다.” (9161F)

그룹 참가자들에게 연합감리교회의 총회와 여선교회는 오랫동안 다음과 같은 것들에 반대해 왔다는 것을 말한다:

- 교회에서나 직장에서의 성희롱;
- 목회적인 관계에서의 성적 학대와 부정 (이것은 평신도나 안수받은 목사나 공히 교회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죄목이다);
- 아동 성학대;
- 아동 결혼;
- 전쟁 무기로서의 강간도 포함해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적 및 다른 형태의 폭력;
- 음란물의 사용과 유포;
- 인신매매와 성노예;
- 이성애만 허용하는 것과 동성애 공포증.

(주의: 비록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자를 안수하지 않지만 그것은 그들에 대한 차별이나 교회 혹은 다른 상황에서 그들을 해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아니다.⁴ 그러나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입장은 여전히 해가 되는 차별적인 비성경적인 입장이라고 보인다. 반면에 다른 연합감리교인들은 이런 입장을 온정적이며 성경적이라고 본다. 어떤 이들은 이런 입장이 모순된 것이라고 본다.)

그룹 구성원들에게 다음의 질문들에 응답하라고 요청한다:

1. 당신에게 새로운 정보는 무엇인가?
2. 성경의 무오류성이라는 개념 (성경의 모든 단어가 완전하며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어떻게 일부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성별에 관한 그들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가?
3. 성경의 무오류성이라는 개념을 믿지 않거나 확신이 없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떻게 성별에 관한 그들의 믿음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약 5분 정도 토론한 후에 모든 참여자들에게 감사하라. 참여자들에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가슴에 품고 다음 모임때까지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한다 (15 분)

그룹 구성원들에게 몇 분간 제 3장과 4 장에 나온 중요한 가르침들을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 그들에게 자기 생각을 묵상 일지에 적으라고 초청한다. 그들은 가장 핵심되는 문장들, 질문들, 생각들, 자기 교회나 여성교회 모임이나 소그룹이나 지방회나 연회나 전국 여성교회나 다른 단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 지를 생각할 것이다.

아이디어 벽 (5 분)

10분 후에 각 참가자들에게 자기 아이디어를 적어서 “아이디어 벽”에 붙이라고 권한다. 그들에게 이 내용들이 토론된 주제들과 관련된 공부, 자료, 프로그램, 그리고 예배에 관련된 제안들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과제 (5 분)

다음 과의 과제물들을 미리 살펴 보고 5 장을 읽도록 한다. 참가자들에게 경청자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그리고 필요한 주의 사항이 있으면 이 때 광고한다.

마치는 예배/묵상 (10 분)

인도자가 방 앞에 나갈 때 예배 인도자에게 같이 조용히 따라 오라고 부탁한다. 손목에는 여전히 실이 묶여 있다. 숨을 깊이 쉰 후에 팔을 들어서 실들이 대롱대롱 매달린 것이 보이게 한다. 예배 인도자에게 제단의 초에 불을 붙이게 하고 다음 내용을 읽게 한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얼마나 성별이 강력한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귀한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이해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처음은 아닙니다. 디나의 강간. 엘카나와 그의 불임 아내 한나와의 사랑. 아가서의 연인들. 라합의 구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인간의 성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한 메시지로서 우리의 성적인 욕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억압하고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혐오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적으로 학대하고 착취하고 성을 사고 팔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식으로 성경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 하나님,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목에 실이 주렁주렁 매달린 자신을 가리키면서] 우리는 영원히 묶인 채로, 혼동된 채로, 막힌 채로, 그리고 친밀함과 하나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별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하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듣겠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서로를 위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추악함으로 몸과 마음과 영의 선물들을 남용하고 무시해 버릴 때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도우사 남용과 부정의에 도전하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후주

1. 조지 맥클레인, 틸다 노버그, 낸시 크루(George McClain, Tilda Norberg, and Nancy Kruh). *부르심: 구별된 자의 삶과 사회정의의 실천(The Call: Living Sacramentally, Walking Justly)*.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2013, 43-45쪽.
2. 존 프랑크: “성경의 무오류성에 대한 다섯 가지 견해(John Franke: Five Views on Biblical Inerrancy)” 유튜브 비디오 02:52, 존더반(Zondervan)이 2014년 2월 2일에 올림 <https://youtu.be/zwaqjsBbBJE>. 허락을 받아 사용함.
3. *신약 이해: 학문간 이해를 위한 개론(Engaging the New Testament: An Interdisciplinary Introduction)*. 러셀 프레장(Russell Pregeant). 미네아 폴리스, 미네소타: 포트레스 프레스, 1997, 4-7, 331쪽.
4. *연합감리교회 결의문집, 결의안 2042호*. 교회들에게 “모든 형태의 성별, 성적 정체성, 성적 행동, 성적 경향에 근거한 차별과 폭력”을 반대하도록 명하고 있다 (내쉬빌: 연합감리교회 출판국, 2012), 130-131쪽.

세 번째 모임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위한 전인적 성윤리의 개발

제 5 장

핵심 문장

“우리들은 연합감리교인으로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자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믿는다.” (브루베이커, 제 5 장)

성경의 가르침

“주께서 내 속 내장을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시편 139:13-14)

이 과의 목적

- 개인으로서 우리들이 왜 우리가 믿는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실천은 그런 믿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더 깊게 분별하는 것.
- 어떻게 세력간 영향력과 삶의 경험들과 특권과 여러 스타일의 기독교 교육과 성경의 가르침들이 교회의 성윤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결정하는 것.
- 어떻게 기독교 신앙인들이 사물을 각각 다르게 보는 지를 살펴보는 것. 기독교인들이 다르게 믿고 다르게 행동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

준비

각 참가자들을 위한 카드를 충분히 준비한다. 각 카드에 다음의 내용을 적는다. (한 테이블에 모인 사람들 안에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주의 한다.)

- 11살된 신부와 40살된 남자.
- 성노예로 잡혀 있는 7살 짜리 소년.
- 45살된 레즈비언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장.
- 자기 아내를 강간한 32살된 남자.

- 그 강간에서 살아난 아내.
- 혼외 정사를 한 결혼한 목사.
- 40살된 여자 교회 비서로 35살 된 기혼 남자 목사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
- 69살된 과부로 좋은 보람된 결혼 생활을 했으나 지금은 외롭고 간절한 사람.
- 독신, 이성애자인 30살된 총각.
- 15살된 소년으로 혼인전 순결을 배웠으나 그 여자친구는 같은 기독교인이면서도 지금 성관계를 원한다.
- 그 여자친구.
- 처음 교회에 나온 성전환 여성.
- 동성애의 십대 소년으로 16살인데 부모에게 자신의 성적인 경향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함.

누구든지 원하지 않으면 이 활동에서 빠질 수 있다. 인도자는 다른 각본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참가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상황을 제안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활동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더 폭넓은 경험을 권장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라.

- 3 명의 예배 인도자들에게 미리 3 개의 본문을 복사해 준다.
- “아이디어 벽”에 있는 내용을 필요하면 다시 붙인다. 전날의 카드가 다 거기 그대로 있는지 확인한다.
- 찬송가와 예배 주보를 나누어 주고 파워포인트에 있는 예배 자료는 대기시켜 놓는다.
- 거울과 인덱스 카드는 각 테이블에 비치한다.
- “성은 결정이다(Sex Is a Decision)” (<https://youtu.be/VVVgIXWrii0>)와 “소녀들의 고백--인신매매 실상 1부(Girls Talk TV—Human Trafficking Part 1)” (<https://youtu.be/-YVS7EL1oC4>).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영으로 마음 모으기 (10 분)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영으로 마음 모으기 (10 분)

참가자들을 맞이하면서 큰 원형으로 모이라고 부탁한다. 예배 인도자 두 사람은 원 안에 있고 인도자는 인도자로서 원의 일부로 서 있다.

낭독자1: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온전하도록, 우리 자신을—성적인 면을 포함하는 살아있는 재물이 되도록 부르셨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그 기쁨을 사랑하고 즐기며 누릴 것입니다.

낭독자2: 그러나, 우리가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성을 두려워하고 성이 좋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을 때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비난했습니다.

다함께: 그러나 수치는 우리를 돕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화이며 새로운 눈이며 새로운 비전이며 새로운 감사입니다.

낭독자1: 나는 비난을... (참가자들에게 이 빈 칸을 채우라고 초청할 것)와 함께 하는
그리고 그를 위한 기도로 바꿀 것입니다.

낭독자2: 나는 수치를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인, 나를 축하하는 것으로 바꿀 것입니다!

다함께: 나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나 자신을 도전하고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방식으로 듣고 새로운 목소리로부터 들어보라고 감히 도전할 것입니다.

낭독자1: 나는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데
성경을 오용한 죄를 회개합니다.

낭독자2: 나는 성령님께 내게 새로운 것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다함께: 지금부터 시작한다. 오늘부터 시작한다. 이 방에서 시작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다. 아멘!

찬양으로 초대하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과 예배:연합감리교회 한영찬송가. 86장

실제의 삶—삶의 실타래 (10 분)

“성은 결정이다—결혼을 위한 메시지(Sex is a Decision—Marriage Messages)”를 보여줄 것.
로라 브로더선(Laura Brotherson) 주연으로 이성간 결혼의 건강한 성에 대해 이야기함.
(<https://youtu.be/VVVgIXWrii0>).¹

기록 담당자에게 대답을 적을 준비를 하라고 부탁한다. 참가자들에게는 하나나 두개의 답변을 다음 질문들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부탁한다:

- 우리가 방금 들은 내용에서 무엇이 건강하고 상호적인 성적인 만남의 특징이라고 보는가?
무엇이 요구되는가?
- 참여한 당사자들간의 동등함은?
- 편안함의 정도는?
- 안전함과 신뢰는?
- 브로더슨(Brotherson)이 묘사한 이 만남에서 가장 유익을 얻은 사람은 누구인가?

“소녀들의 고백--인신매매 실상 1부(Girls Talk TV—Human Trafficking Part 1) (<https://youtu.be/-YVS7EL1oC4>) 04:50에 멈춘다.²

기록자에게 다음 질문들에 대한 참가자들의 1 혹은 2 개의 답변을 적을 것을 요청한다:

- 미국내에서의 인신매매의 상황에 대해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어떻게 권력이 사용 혹은 남용되는가?

- 하나님이 주신 성별 혹은 성활동이라고 하는 선물에 대해서 이 소녀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가?
- 관계의 권력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가?
- 여기 묘사된 만남에서 누가 가장 이익을 취하고 있는가?

기독교인들을 위한 성윤리를 밝히는 일을 시작하기 좋은 출발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는 것이다:

- “먼저, 해를 끼치지 말라”는 금언: 이것은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총회 여권신장위원회 (General Commission on the Status and Role of Women)의 성윤리 심포지움의 주제로 종종 사용된다.
- 관련된 당사자들: 성행위는 일방적인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적이어야 된다.
-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역학관계: 목회자, 상담가, 의사 등... 전문가들이 교인이나 환자들과 성적으로 관계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대부분 극단적인 힘의 불균형 때문이다. 같은 이유는 어른과 어린이가 성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에도 적용된다.
- 이익을 보는 사람: 성적인 만남에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지어는 재정적으로도 누가 이익을 보는가?
- 성경과 전통과 이성과 경험: 웨슬리의 4 가지 기둥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윤리에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과 그 말씀 (40 분)

각 참가자에게 “준비” 시간에 나열된 인물 묘사가 써 있는 카드 한 장씩을 나누어 준다.(같은 방 안에 중복되는 인물 카드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 우리들이 오늘 공부를 위해서 이 카드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음 40분 동안은 바로 그 카드에 있는 인물의 음성과 관점을 가지고 말하려고 노력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첨가해서 말한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며,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결정과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자기 세대, 사회적 위치, 자라온 환경, 인종-민족적인 정체성, 문화, 나이, 능력, 성별, 성적인 취향, 그리고 다른 많은 정체성에 가해지는 제한들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한다. 우리는 종종 우리들이 진리라고 선언하는 것들이 나의 진리 혹은 너의 진리일뿐이지 유일한 진리, 또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닐 수도 있음을 이야기 한다. 이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단지 알고 있는 것만을 알 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연습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라고 하는 초청이며 하나님의 음성과 성경의 가르침과 전통의 영향과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의 경험과 논리를 들어 보려고 노력하라는 요청이다.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와 존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습을 해보라고 부르신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동의할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더 강건한 방식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가 하는 것이다.

인쇄된 카드와 거울들은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의 다른 목소리들과 이야기들을 들어보기 위하여 우리들을 돕는 도구들임을 설명한다. 참가자들에게 가능한 자기

에게 주어진 카드에 묘사된 인물이 되어 보려고 하고, 거울은 다른 사람을 향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성한 얼굴이 그룹 안에 있는 모든 참가자들의 얼굴 속에 드러남을 상기시키도록 한다. 모두에게 거울을 사용하고 그 거울에 대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일에 가능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해 줄 것을 부탁한다. 테이블 인도자들과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주어진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점을 지적해 줄 것을 부탁한다.

중요한 점: 참가자들이 불편하게 느끼면 언제든지 이 활동에서 빠질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아니면 그들이 원하면 다른 인물이 묘사된 인덱스 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다. 누구든지 빠지겠다는 사람은 그 그룹 안에 같이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활동을 보고 듣도록 한다. 아니면 그들은 주어진 분량의 교재를 읽고 묵상할 수도 있다.

그룹 참가자들에게 제 5 장에서 주어진 과정에 근거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개인적 및 공동체적인 성윤리를 개발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일련의 질문들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성윤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한 부분인 우리의 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별을 기뻐하는 의도에 근거하여야 하며,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성별의 기쁨을 비하하는 착취와 사악함을 방지하는 성윤리어야 한다고 참가자들에게 상기 시킨다.

자기들 테이블에서 다음의 질문들을 가지고 논의해 보라고 초청한다. 참가자들에게 카드에 있는 인물들은 가능한 한 주어진 역할에 맞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토론을 위한 질문들(이 질문들의 복사본을 나누어 주든지 아니면 갱지에 쓰거나 파워포인트에 보여주면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한다):

1. 교회 법이나 믿음은 당신이 맡은 인물의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이 도움이 되는가? 왜 그런가 아니면 왜 도움이 되지 않는가?
2. 이 인물처럼 당신은 당신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당신이 맡은 인물이 자기 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수치심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당신의 현재의 성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3. 성경의 이야기들과 혹은 언어들에 당신이 맡은 인물의 성적인 상황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비하하고 있는가? 연합감리교회의 언어는 어떠한가?
4. 당신의 목사나, 평신도 대표나, 주일학교 교사나, 혹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장이 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자료나 도움을 주었는가? 그렇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묘사해 보라.
5. **연합감리교회 교리와 장정**, 우리 교단의 헌법은 성별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선물”로 긍정하는 한편 성적인 관계는 “일부일처인 이성간의 결혼”에만 허용한다. 이것이 당신이 맡은 인물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6. 미국이나 한국에서 동성연애에 관한 갈등은 무엇에 관한 갈등인가? 이 문제가 당신이 맡은 인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활동을 위해 3 분이 남았을 때 알려준다. 기록 담당자가 보고하기 위해 모든 답변들을 적었는지 확인한다. 사람들이 준비가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발견 (15 분)

자기에게 맡겨진 인물들의 눈으로 경험한 내용들을 나누도록 방안에서 한 두 명을 초청한다. 그들에게 자신들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일에 얼마나 성공했다고 느끼는 지 물어보라 (거룩하게 느꼈는가? 힘을 받는다고 느꼈는가? 생각이 깊어졌는가? 책임이 있다고 느꼈는가? 화가 났는가? 실망했는가?). 자기들의 묵상과 반응을 나누도록 초청한다.

이 활동은 힘들고 도전이 되는 일이었음을 긍정해 주고 이 활동의 목표는 자기들이 믿는 바 신념을 바꾸는데 있는 것이 아니었고 경험과 믿음이 나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랫동안 기독교인으로서 갈등해 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데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참가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최상의 영적, 감정적, 육체적, 성적인 존재가 되고자 애쓰는 동안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기록한 사람들에게 한 테이블에 한 번씩 자기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적은대로 보고하도록 부탁한다. 그 전에 보고할 시간이 없었던 테이블이 있었다면 적어 놓았다가 그들을 먼저 시킨다. 시간이 남으면 개인들에게 자기들이 가진 다른 생각이 있으면 나누어 보라고 부탁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한다 (15 분)

독서와 토론을 통해서 다음의 주요 개념들을 살펴본다:

-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간으로서, 성적인 존재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데는 성경구절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는지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여자는 복종하라고 하며, 정욕은 나쁜 것인데 정욕과 싸울 수 없는 사람들만 결혼을 할 것이라고 한 바울의 서신에 있는 구절에만 의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파악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다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 또한 초대 교회 교부들의 말들, 모두 신실한 남성들의 말들은 불행이도 여성들과, 그 당시의 성적인 노예들과, 젊은 남성들과, 지배층이 거느리고 있었던 첩들로부터의 어떤 통찰도 얻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 “육체”에 관한 것은 무엇이나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육체적인 즐거움을 축하하는 아가서와 같은 성경의 책도 있다. 우리들은 동성애자들이나, 소녀 신부들이나, 근친상간의 생존자들 – 이 모든 사람들이 구약성경 시대부터 고린도 교회를 거치고 성어거스틴을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가족들의 일부로 항상 존재해 왔지만 그들로부터는 아무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
- 우리의 성윤리는 반드시 소외된 사람들을 고려하고 수치에서 벗어나 신실한 삶과 시대에 맞는 신학적인 입장을 지녀야 할 것이다. 브루베이커(Brubaker)는 우리가 소외되고 억압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전통과 이성에서 가장 최상의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웨슬리가 주장한 네 가지 지침에 의지할 것을 촉구한다.³ 무엇보다도 그녀는 우리가 새로운 통찰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눈을 돌리라고 초청한다.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브루베이커(Brubaker)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하고 질문하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God With Us)이신 예수님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와 친절과 인내와 우리 몸과 우리 자신에 대한 초청의 예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마치는 말로 참가자들에게 주변을 걸어 보고 “지난 시간에 자신이 대표했던 사람들의 시각을 가지고 아이디어 벽”에 있는 내용을 살펴 보라고 부탁한다. 우리가 마치는 예배 때 그것을 사용해야 하므로 자기 카드를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그들에게 부탁한다. 다 마치고 나서는 각자 자기 자리에 돌아가 앉으라고 말한다.

과제 (5 분)

참가자들에게 자기 노트들을 훑어 보고 눈에 띄는 내용이나 브루베이커의 책에서 적은 내용을 살펴 보라고 한다. 그리고 6장을 읽으라고 부탁한다. 그들에게 경청하는 마음으로 들어줄 사람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다른 광고할 일이나 통상적인 광고가 있으면 이 시간에 한다. 참가자들에게 예배단 위에 퍼즐 조각으로 대변되는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다. 그리고는 예배로 초청한다.

마치는 예배 (10 분)

찬양: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한영찬송가(Korean English Hymnal)*. 349장.

낭독자1: 사랑은 치유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행동과 몸짓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회복합니다. 요한복음에 쓰인대로 “사랑하지 않는 이는 아직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낭독자2: 부정의는 사망입니다. 수치심도 사망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거나 부끄럽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을 풍성히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에는 건강하고, 좋은 성을 누리는 삶-착취와 폭력과 음란물과 취약한 이들을 힘으로 누르려는 정욕에서 해방되는 자유로운 삶이 포함됩니다.

낭독자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순종과 정의와 건강과 긍정과 사랑의 성운리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랑과 교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활짝 열린 문을 가진 윤리를 선포합니다.

낭독자2: 그러나 그 문은 증오와 질투와 교만과 수치와 혐오감을 제거하는 좁은 문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교회 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입니다.

낭독자1: 우리는 성을 둘러싼 모든 문제에 대해서 동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다음 사람들에게 고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이제 다음의 인물이 묘사된 카드를 가진 분들은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각 그룹에서 다음의 인물 묘사 카드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차례가 되면 일어서라고 부탁한다).

- 11살짜리 신부와 40살된 남자.
- 성노예로 잡혀 있는 7살 짜리 소년.
- 45살된 레즈비언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장.
- 자기 아내를 강간한 32살된 남자.
- 그 강간에서 살아난 아내.
- 혼외 정사를 한 결혼한 목사.
- 40살된 여자 교회 비서로 35살 된 기혼 남자 목사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
- 69살된 과부로 좋은 보람된 결혼 생활을 했으나 지금은 외롭고 간절한 사람.
- 독신, 이성애자인 30살된 총각.
- 15살된 소년으로 혼인전 순결을 배웠으나 그 여자친구는 같은 기독교인이면서도 지금 성관계를 원한다.
- 그 여자친구.
- 처음 교회에 나온 성전환 여성.
- 동성애자인 십대 소년으로, 16살인데 부모에게 자신의 성적인 경향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함.

* 만약 카드 내용을 바꾸었다면 이 교독문도 거기에 맞추어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낭독자1: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교단이 선포한 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별에 관한 갈등과 대화를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이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사람은 거룩한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환영 테이블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Blessed Assurance),” *한영찬송가(Korean English Hymnal)* 204장.
이 공과를 마치면서 참가자들에게 “나는 당신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는 말로 서로 인정하도록 한다.

후주

1. 로라 브로더슨(Laura M. Brotherson), “성은 결정이다(Sex Is a Decision—Marriage Messages)” 유튜브 비디오, 03:20, StrengtheningMarriage.com에서 2014년 7월 30일에 올린 것, <https://youtu.be/VVVgIXWrii0>.
2. 리사 윌리엄스(Lisa Williams), “소녀들의 고백 - 인신매매 제 1 부(Girls Talk TV—Human Trafficking Part 1)” 유튜브 비디오, 13:22, 걸스 토크(Girls Talk)에서 2013년 1월 19일에 올린 것, <https://youtu.be/-YVS7EL1oC4>.
3. 웨슬리의 네 기둥(Wesleyan quadrilateral)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다음의 내용을 참조해 보라. “우리의 신학적 과제”를 읽어 볼 것. *연합감리교회 교리와 장정 2012년 판*, 78 - 89쪽.

네 번째 모임

수치와 비난을 사랑과 윤리적 행동으로 맞서기

제 6 장

핵심되는 문장

“우리는 개인과 가족의 성을 포괄하면서도 매일 매일 피해자가 되는 죄없는 사람들의 성적인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 시대의 성윤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 (브루베이커, 제 6 장)

성경의 가르침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몸을 돌리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거니와,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7:44 - 48)

이 과의 목표

- 계속해서 어떻게 성경과 신학적인 가르침들이 기독교 성윤리를 형성하는데 - 효과적으로 혹은 비효과적으로 - 사용되는 지를 검토한다.
- 우리의 몸과 성적인 자아에 관한 믿음을 오도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성적인 착취와 남용에 있어서 수치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지를 살펴본다.
- 인간의 성별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한 윤리적이고 정당한 틀을 만든다.

준비

- 각 테이블에 찬송가와 예배 자료집(제안된 찬송과 찬양 묶음)을 놓거나 껌도로 보여주거나 파워포인트로 보여준다.
- 예배 처소를 준비한다.

- “아이디어 벽”을 그 전에 치워 두었으면 다시 세워놓는다.
- 각 테이블에 스티커 노트와 인덱스 카드를 놓는다.
- 각 테이블에서 한 사람에게 예배 중에 봉독자로 섬겨달라고 부탁하고, 종이에 문장을 적고 숫자를 써넣어서 자기 차례가 되면 읽도록 한다. 첫 번 봉독자에게는 읽기 전에 초를 켜 달라고 부탁한다. (만약 테이블 숫자보다 문장의 숫자가 많으면 첫 번 봉독자가 마지막 문장들도 읽는다)
- 참가자들이 방에 들어올 때는 (글을 읽을 정도의 밝기의 최소한 불만 남기고) 불을 끈다. 촛불이 예배를 위해 점화될 때까지는 불을 켜지 말것.
- 비디오를 준비해 둔다. “나의 성적 학대 이야기(My Sexual Abuse Story)” (<https://youtu.be/WJnnOIhHVhA>)와 “성에 관한 우리의 접근법을 새롭게 하기(Reinventing Our Approach to Sex)” (<http://tedxmuskegon.org>).
- “실제의 삶”의 이야기 복사본을 놓고 참가자 중에서 정해진 시간에 읽을 사람을 정한다.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영으로 마음 모으기 (15 분)

조용히 서서 모든 사람이 조용해 질 때까지 말을 하지 않는다. 첫 번 낭독자에게 초를 켜라고 신호를 주고 성경을 읽게 한다.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조명이 있도록 확인할것.

낭독자1: 어두움 속을 걷던 이들이 빛을 보았습니다.

낭독자2: 칠흙같은 어둠 속에 살던 이들에게 빛이 동터옵니다.

낭독자3: 주님은 나의 빛이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낭독자4: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낭독자5: 당신의 빛을 새벽 동트는 빛처럼 비치게 하십시오. 당신의 치유가 신속하게 솟구칠 것입니다. 당신의 의로움이 당신 앞에 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뒤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3 초간 멈춤)

낭독자6: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주며 순진한 이들에게 이해력을 부여주십니다.

낭독자7: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낭독자8: 나는 어두움을 그들 앞에서 빛이 되게 하고 거친 곳을 평평한 땅이 되게 하겠습니다.

낭독자9: 그리스도 안에는 겸손의 빛이 있습니다.

낭독자10: 빛을 증거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성적인 질병과 착취와 부정의에 대적하여 싸울 때 우리는 빛으로 증거할 것입니다.¹

불을 켜고 참가자들에게 찬양을 하도록 한다. “주의 빛 따르기 원합니다,” 찬송과 예배: 연합감리교회
한영찬송가. 102장

사람들에게 평화의 표시를 하면서 서로 인사하도록 한다.

오늘의 주제를 소개하고, 그룹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지난 시간에 묘사했던 인물들을 기억하게 한다. 지
금까지 토론했던 내용들과 제 6장의 과제 분량에 대해서 다음 요점을 이야기한다:

- 브루베이커(Brubaker)는 우리들에게 수치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별과 몸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할 능력을 퇴색시키거나 심지어는 죄악시하였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옷을 벗
은 동상을 가리던 사람들의 자손들이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심지어 가구의 다리도 가려야
했다. 우리는 “수치”와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을 우리의 성윤리의 핵심으로 삼았기 때문이
다. 그녀는 카렌 맥클린톡 목사(Reverend Karen A. McClintock)를 인용하면서 “널리 퍼진 수
치라는 감정은 누군가가 나쁘다, 적절하지 않다, 흠이 있다, 자격이 없다, 아니면 인간으로
서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지속적인 생각이다”라고 말한다 (브루베이커, 제 6장).
- 어제 묘사한 내용에 근거해 보면 왜 “수치”는 기독교 성윤리를 개발하는데 해가되는 기반일
수 있는 가? (몇 사람이 대답할 시간을 주고 그들의 답변을 반복해서 분명하게 한다. 기록자
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라.)

실제의 삶—삶의 실타래 (15 분)

“나의 성 학대 이야기(My Sexual Abuse Story)” (<https://youtu.be/WJnnOIhHVhA>).²

비디오를 본 후 참가자들에게 다음 질문에 대해서 그룹에서 이야기하도록 한다:

- 당신은 왜 그여자가 이 비디오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녀는 무엇을 원하였습니까?
- 그녀는 왜 자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 현재 그녀의 성적인 자아에 관한 견해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녀가
묘사한 경험이 그녀에게 성적인 친밀감에 관해서 좋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을까요?
- 이 이야기 속에서 수치감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성에 관한 우리의 접근법을 새롭게 하기(Reinventing Our Approach to Sex)” (<http://tedxmuskegon.org>)라는 비디오를 보여준다. 바바라 리(Barbara Lee)가 만든 것으로, 09:06에서 비디오를 멈춘다. (https://youtu.be/LNuBXUMwjBI?list=PLDE_hlOiWJM2QPGbGJ4EZnrP948Gr7khf).

참가자들에게 이 모임 후반부에 비디오에 나오는 몇 가지 논점에 대한 토론이 있을 것이므로 질문이
있거나 적을 것이 있으면 적으라고 이야기한다.³

말씀과 그 말씀 (40 분)

각 테이블 인도자들에게 연합감리교회 결의문집에 나오는 다음의 문장들을 읽으라고 부탁한다:

- “우리는 낙태에 관련된 개인적 및 도덕적인 문제에 관하여 여성들이 남편과 의사와 목사와 상의하되 스스로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권장한다.”⁴
- “그러므로 연합감리교회는 모든 성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활한 마음과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역에 헌신할 것을 결의한다.”⁵
- “어린아이들을 묘사하는 어떤 성적으로 두드러진 내용은 다 음란물이다.”⁶
- “대부분의 음란물들은 필연적으로 여성에 대한 억압과 관련되어 있다... 여성의 몸은 상품화되고 사물화되어 취급되고 있다...”⁷
- “약 1억 3천만 명 이상의 여성들과 소녀들이 오늘날 여성의 할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보다 적은 숫자기는 하지만 중동의 국가들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⁸

주의: 여성의 할례는 신부의 순결을 담보하기 위해서 행해지는데, 여자들이 성적인 쾌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래서 방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감대인 클리토리스를 제거하는 것이다.

- “전쟁시의 강간은 많은 개인들과 그룹들이 저지르는 폭력행위로서 군인들이 적국 혹은 반대편의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가해를 하는데, 종종 명령에 의해서 자행된다. 그러므로 강간은 실질적으로 전쟁의 연속선상에 있다.”⁹

기록 담당자에게 노트를 적을 것을 상기시킨다. 그룹 참여자들에게 다음의 질문들을 사용해서 토론하도록 부탁한다:

1.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어디서 성은 즐기거나 축하할 일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가?
2.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성윤리는 권력, 동의, 수치 등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당신 개인의 윤리는—단지 당신이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는 모습은—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3. 성별에 관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무엇이 더 필요한가?

끝내기 10분 전 정도에 참가자들에게 노트 카드 위에 (모두 같은 색으로 할 것) 자기들이 연합감리교회의 성별, 성폭력, 음란물 등등에 관한 성명서에서 보기를 원하는 내용이나 문제들을 제안하여 써보라고 초청한다. 아니면 자기가 왜 어떤 선언에 강력하게 동의(혹은 반대)하는 지를 적도록 한다. 참가자들에게 한 카드에 한 내용만 적지만, 카드는 쓰고싶은 만큼 많이 쓸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그룹 인도자에게 자기 그룹에서 그 중 몇 선언들을 가지고 참가자들이 읽고 토론하도록 인도하라고 부탁한다. 그 목적은 합의를 이끌어 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자기 의견을 나누도록 허락하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의견을 나누는 것은 선택사항임을 상기시킨다.

시간이 되면 참가자들에게 다른 카드에 자기들 자신의 성별, 성별에 대한 신조, 일반적인 성윤리에 대해서 발견한 것 중의 하나를 적어 보라고 초청한다. 그들에게 누구든지 나누고 싶지 않으면 카드에 적지 않아도 된다고 상기시킨다. 인도자가 그룹이 토론 시간으로 넘어갈 때 카드를 모으겠다고 이야기한다.

발견 (15 분)

기록자에게 한 번에 한 테이블씩 특별한 순서없이 보고하도록 초청한다. 시간이 남으면 개인들 가운데 따로 할 말이 있으면 나누라고 말한다. 토론에서 나온 질문들을 반복함으로써 모두 주어진 내용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다음의 질문들을 할 수 있다:

- 성별의 잘못된 사용을 구성하는 내용에는 무엇이 들어간다고 교회에서 동의했는가?
-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점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 당신으로 하여금 한 동안 생각하게 하는 새로운 정보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한다 (15 분)

오늘의 수업 중에 사용된 미디어 자료와 토론 독서에 나오는 주요 개념들을 살펴본다.

- 수치는 건강한 성적인 관계에서는 있을 자리가 없고 교회는 수치를 인간의 성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사용하는 무기나 차선책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그러나 성이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모욕을 주고 인간성을 박탈하며 착취하는 경우에는 교회는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해야 하고, 또 말해왔다. 아마도 몇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인신매매나 성폭력 등에 관해 이야기하는 일에 더 많은 자금과 활동을 추가할 수 있다—그러나 교회 내부에서 합의하는 분야들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합의할 수 있는 분야 중의 하나는 성노예, 착취, 폭력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다.
- 변화는 언제나 일어나는 것이며 교회 안에서의 변화도 예외는 아니다. 결혼은 남자들 간에 한 남자는 성생활과 아들을 얻는 대신 다른 남자가 축과 땅을 얻는 사업상의 계약에서 시작해서 오늘날에는—가장 좋은 경우에는—거룩한 관계라고 여겨지는 것으로까지 옮겨왔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우리의 성윤리는 변화되었고 현재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이다. 문제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육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이 되도록 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 우리가 여러 성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은 인신매매, 생식 건강, 전쟁무기로서의 강간을 중단하는 일 등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외적으로 전세계의 기관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편견을 도전받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혐오하고 두려워하고 듣기를 거부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있다.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를 위한 성윤리를 만드는 일의 일부는 누가 토론석에 앉아야 하고 누구의 목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들어야 한다.

각 테이블마다 자기들이 배운 것, 자기들이 고민한 것, 자기들이 연합감리교회의 입장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는 것, 아니면 교단이 성별에 관해서 더 시간을 쓰고 토론하기를 제안하는 것에 관해서 한 두 문장

정도로 요약한 성명서를 만들어 보라고 부탁한다. 인도자나 기록자에게 마치는 예배 시간 동안에 그런 선언문 중의 한 두개를 읽도록 부탁한다.

또한 마치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동안 인덱스 카드를 제출하라고 부탁한다. 인도자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장차 가능한 자료나 행동을 위해 여성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아이디어 벽”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의 요약을 나눌 것이라고 설명하라. 또한 이런 요약문들은 그 후에 따르게 될 메일이나 이메일에서도 참가자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지역 상황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마치는 예배 (10 분)

함께 찬송한다. “항상 진실케,” 찬송과 예배: 연합감리교회 한영찬송가. 278장

교독문

인도자: 오 하나님, 성별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다함께: 우리는 모든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계속 노력합니다.

인도자: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다함께: 새로운 진리를 직면하지 못하는 비겁함으로부터 절반의 진리로 만족하는 게으름으로부터

인도자: 우리가 모든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으로부터

다함께: 오늘 우리를 구하소서, 선하신 주님.

*교독문의 마지막 네 줄은 “케냐 교회에서 온” 기도에서 차용한 것이다(Wild Goose Resources Group, adm in. by GIA Publications, Inc., copyright 1999), 179번, 말씀과 노래: 2012년 총회예배 자료집(Word & Song: Worship Resources for the 2012 General Conference). 아빙돈 프레스, 2011년.

(인도자나 기록 담당자에게 자기 그룹에서 적어도 한 문장을 나누도록 조정한다. 각 선언문 뒤에는 참가자들에게 이 말을 반복하도록 조정한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계속된 계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약 10초를 쉬고 교독문을 계속한다.

낭독자1: 우리들은 엄청 갈등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또 많이 웃었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서로 달랐습니다. 우리들은 도전했고 도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함께 그리고 각자 교회입니다. 우리는 창조 당시에 받았던 성별이라는 선물을 더 잘 이해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낭독자2: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로서 우리들은 일하고 기뻐하기 위해 지어진 몸과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목소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축복합니다.

다함께: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우리들을 보시기에 좋다고 선언하십니다! 좋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해진 자매요 형제로서 우리들은 이 자리를 떠나서 온전함과 평화와 정의와 바른 관계와 화해를 위해 일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귀한 가치를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희망을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는 노래는 “작은 불꽃 하나가,” 찬송과 예배: 연합감리교회 한영찬송가 262장을 부른다.

“아디디어 벽”에 있는 글들을 모아서 한 곳에 잘 정리해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영적 성장 사무실 (Office of Spiritual Growth)에 이메일로 보내준다.

후주

1. 이 기도는 이사야 9:2, 시편 27:1, 요한복음 8:12, 이사야 58:8, 시편 119:105, 이사야 42:16에서 영감을 받은 것임.
2. “나의 성 학대 이야기(My Sexual Abuse Story)” 유튜브 비디오 04:56 힘내라 친구야(Stay Strong Baby) 2014년 7월25일자 (<https://youtu.be/WJnnOIhHVhA>). 허락을 받아 사용함
3. 바바라 리(Barbara Lee), “성에 관한 우리의 접근법을 새롭게 하기(Reinventing Our Approach to Sex)” 유튜브 비디오, 14:19, 테드엑스 토크(Tedx Talks), 2013년 11월 15일자, 허락을 받아 사용함 https://youtube/LNuBXUMwjBI?list=PLDE_hlOiWJM2QPGbGJ4EZnrP948Gr7khf. Used with permission.
4. *연합감리교회 결의문집 2012년판*, (내쉬빌: 연합감리교회 출판국, 2012), 120쪽.
5. 앞의 책, 130.
6. 앞의 책, 156.
7. 앞의 책, 157.
8. 앞의 책, 248.
9. 앞의 책, 873.

성별과 교회에 관한 자료들

Anderson, Cheryl. *Ancient Laws and Contemporary Controversies: The Need for Inclusive Biblical Interpre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Anderson, Cheryl B. *Women, Ideology and Violence*. New Edition. London: Bloomsbury T&T Clark, 2006.

Boring, M. Eugene and Fred B. Craddock. *The People's New Testament Commentar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0.

Brotherson, Laura. *And They Were Not Ashamed: Strengthening Marriage Through Sexual Fulfillment*. Inspire Books, 2004.

Cheung, Patrick. *Radical Love: Introduction to Queer Theology*. New York: Seabury Books, 2011.

Coakley, Sarah. *God, Sexuality and Self: An Essay on the Trin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Coleman, Monica A. *The Dinah Project. A Handbook for Congregational Response to Sexual Violence*. Cleveland: The Pilgrim Press, 2004.

De la Torre, Miguel. *Out of the Shadows, Into the Light: Christianity and Homosexuality*. Atlanta: Chalice Press, 2009.

Dines, Gail. *Pornland: How Porn Has Hijacked Our Sexuality*. Boston: Beacon Press, 2010.

Fortune, Marie M. *Is Nothing Sacred? The Story of a Pastor, the Women He Sexually Abused, and the Congregation He Nearly Destroyed*. United Church Press, 1999.

Gaede, Beth Ann, editor. *When a Congregation Is Betrayed: Responding to Clergy Misconduct*. Herndon, VA: The Alban Institute, 2006.

Falls, Abraham. *Human Trafficking: A Global Perspective of Modern Day Human Trafficking and Sex Slavery*. Kindle ebook, 2014.

Hepburn, Stephanie and Rita J. Simon. *Human Trafficking Around the World: Hidden in Plain Sigh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3.

Jensen, Robert. *Getting Off: Pornography and the End of Masculinity*. Brooklyn, NY: South End Press, 2007.

Jung, Patricia Beattie and Darryl W. Stephens, editors. *Professional Sexual Ethics: A Holistic Ministry Approa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3.

Lee, Barbara. *Sacred Sex: Replacing the Marriage Ethic with a Sexual Ethic*. Second Edition. Grand Haven, MI: Splattered Ink Press, 2015.

Martin, Dale B. *Sex and the Single Savior: Gender and Sexuality in Biblical Interpretati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McClain, George, Tilda Norberg and Nancy Krub, editor. *The Call: Living Sacramentally, Walking Justly*. New York: United Methodist Women, 2013.

McClintock, Karen A. *Sexual Shame: An Urgent Call for Healing*.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Press, 2001.

Merrick, James R. A., Stephen M. Garrett, R. Albert Mohler Jr., Peter E. Enns, Michael F. Bird, Kevin J. Vanhoozer, and John R. Franke. *Five Views on Biblical Inerrancy*. Grand Rapids, MI: Zondervan Press, 2013.

Parker, Evelyn L., editor. *The Sacred Selves of Adolescent Girls: Hard Stories of Race, Class, and Gender*. Cleveland: The Pilgrim Press, 2006.

The Book of Disciplin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Nashville: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2012.

The Book of Resolution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Nashville: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2012.

Thistlewaite, Susan Brooks. *Women's Bodies as Battlefield: Christian Theology and the Global War on Wome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5.

Wangila, Mary Nyangweso. *Female Circumcision: The Interplay of Religion, Culture and Gender in Kenya*. (From the *Women from the Margins* series). Maryknoll, NY: Orbis Books, 2007.

Weems, Renita J. *What Matters Most: Ten Lessons in Living Passionately from the Song of Solomon*. West Bloomfield, MI: Walk Worthy Press, 2004.

West, Traci C. *Disrupting Christian Ethics: When Racism and Women's Lives Matter*.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Williams, Demetrius K. *An End to This Strife: The Politics of Gender in African American Church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다른 자료들

정신 건강에 관하여:

<http://www.unitedmethodistwomen.org/maternal-child-health>

(See Appendix B for additional information.)

전세계적인 문제로서의 임신과 출산 건강에 관하여:

<http://www.unitedmethodistwomen.org/news/stumbling-over-reproductive-health>

피임에 관하여:

<http://www.unitedmethodistwomen.org/news/first-time-anyone-talked-to-me-about-contraception>

인신 매매에 관하여:

<http://www.unitedmethodistwomen.org/human-trafficking>

가정 폭력에 관하여:

<http://www.unitedmethodistwomen.org/domestic-violence>

후천성 면역결핍증(HIV/AIDS)에 관하여:

<http://www.unitedmethodistwomen.org/news/treating-hiv,-aids-and-stigma>

저자 소개

엠 갈린다 버톤(M. Garlinda Burton)은 테네시 주의 내쉬빌에 살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디커니스(Deaconess)인데 작가이자 편집자이며 동시에 저소득 유색 아동들을 위한 교양 강좌 및 여름 독서 프로그램인 내쉬빌 프리덤 스쿨 파트너십(Nashville Freedom School Partnership)의 디렉터이다. 그녀는 *엄마의 지혜*(Mother Wit)라고 불리는 자문 사역도 직접 하고 있다.

2014년에 디커니스(deaconess)로 안수받은 버톤(Burton)은 여성과 유색인종과 아동과 빈민층을 위한 정의에 관해서 책도 쓰고 녹음이나 촬영도 자주 한다. 그녀는 33년간 연합 감리교회에서 일하다가 2012년에 은퇴하였는데 가장 최근에는 총회 여권신장위원회(General Commission on the Status and Role of Women) 총무로 일했다. 그 후 프리덤 스쿨(Freedom Schools)과 동역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워싱턴 디씨에 있는 아동 보호 기금(Children's Defense Fund in Washington, D.C.)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수양회 인도자 및 대중 인기 강사인 버톤(Burton)은 요리, 소설 독서, 여행, 그래픽 디자인, 어머니와의 여행, 젊은이들 특히 자기 손자녀들로부터의 배움을 즐긴다.

부록 A

경청자(Compassionate Listener)의 지침서

선교학교는 참가자들이 영적으로 자라도록 돕는 동시에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여 사람이 변화하는 배움의 장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종종 이런 모임에 자기 개인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느낌이나 고민들이 생겨나서 때로는 그것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토론은 종종 개인들에게 감정적인 충격을 준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누군가 경청하는 마음과 은사를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준비 팀에서는 선교 학교 기간 내내 경청하는 마음으로 들어줄 이들로 섬겨줄 수 있는 분들 몇 분을 미리 선정해 놓았다.

경청자들은 정신과 의사나 상담의사가 아니다. 그들은 목회자일수도 있고 평신도 일수도 있다.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다. 시작하는 예배 시간에 이들을 소개한다. 누구든지 이들 중 한 분과 이야기하고 싶으면 자유시간에 직접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그들과 연결시켜 달라고 이 모임의 인도자에게 이야기하면 된다. 그러면 어떤 팀 멤버든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경청자의 역할

1) 듣고 공감해 준다. 경청하는 마음으로 듣는 이의 초점은 찾아온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는 데 있다.

- 말하는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고 이해받겠다고 느끼도록 경청자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들이 말하게 하고 경청자는 듣기 위해 거기 있는 것이다.
- 대화가 마칠 때 쯤이면 경청자들은 그 개인을 돕기 위해서 기도나 상담 혹은 지원 모임 등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 준다.

2) 선교 학교 기간 중에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문제를 적어 놓는다.

-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 선교학교를 주관하는 분들이 바로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가?

3) 선교 학교를 마친 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자료들을 검토해 보라고 참가자들을 권면한다.

- a. 개인적인 도움.
- b. 네트워크 도움.
- c. 목회자 심방.
- d. 전문의 치료(지속하거나 아니면 새로 시작할 것).
- e. 슬픔(Grief) 상담.
- f. 이혼 후 회복 상담.
- g.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들.

경청자가 지켜야할 사생활 보호

경청하는 마음으로 듣는 이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비밀이 보장된다. 예외적인 경우는:

-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있는 경우.
-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좋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

필요하다면 경청자들을 위한 안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도움을 위해서는 선교학교 주관하는 분들을 찾아가라.

이 자료를 기꺼이 나누어 주신 밥 후버(Bob Hoover)와 웬디 민닉스(Wendy Minnix)와 ‘해를 가하지 말라 2011년 준비팀(Planning Team for Do No Harm 2011)’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해를 가하지 말라(Do No Harm)’는 성의 안전을 도모하여 성학대 문제에 응답하는 연합감리교회의 국제적인 모임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연합감리교회 성윤리 타스크 포스(The United Methodist Church Sexual Ethics Task Force)의 웹사이트 www.umsexualethics.org 를 참조하라.

부록 B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모자/녀건강관리 계획

여성과 아동을 위한 건강

“나는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기위해 왔다.” - 요한복음 10:10

성적인 건강은 엄마의 건강의 전제조건이다. 성적 건강의 문제는 성병이나 계획되지 않은 임신, 강간, 건강보험의 결여 등 모두 엄마와 아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한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 문제는 당뇨병, 심장병, 비만 등 태어나지 않은 아기와 그녀 자신의 생존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매년 거의 전 세계적으로 300,000명의 여성들이 임신중에 혹은 출산시에 사망한다. 많은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질병 때문이다. 90퍼센트 이상의 죽음은 적절한 건강 정보와 시설이 되어 있는 병원에서 훈련된 의료진만 있으면 방지될 수 있는 것이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믿음에 근거한 여성의 조직으로 이 문제가 우선순위에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한다.

2015년 한 해 동안에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250,000 이상의 지원금을 전세계에 있는 여성과 아동의 건강을 위해 지불하였다. 수많은 성공 사례들 가운데 둘을 들자면 아이티(Haiti)에서 60명의 조산원을 훈련해서 그들이 848명의 아이들을 받아 낸 것과 짐바브웨(Zimbabwe)에 산파 학교를 지원해서 매년 100 명 가까운 산파를 훈련한 일이다.

우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에는 다음과 같은 사역이 들어 있다:

- 종합적인 생식 건강 교육
- 가족계획과 피임
- 안전한 출산과 양질의 건강 보험
- 성차별에 근거한 폭력 근절 프로그램

우리들은 모든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모자 보건의 필요성과 관련된 문제들의 의식화에 동참하기를 촉구하면서 건강 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대변하고 그 동안 실적이 좋은 것으로 입증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일에도 동참하기를 권한다.

이 사역을 계속 하자!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돕자!

당신의 헌금 중 프로젝트 번호 3001176(project 3001176)은 전세계의 여성과 아동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원할 것이다.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는 웹 링크는 다음과 같다:

www.unitedmethodistwomen.org/donate/umwprojects/maternal-and-child-health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수표로 보낼 수 있다.

그 주소는:

United Methodist Women National Office

Supplementary Giving (Maternal and Child Health)

475 Riverside Drive, Room 1503

New York, NY 10115

웹사이트 www.unitedmethodistwomen.org/maternal-child-health 를 방문해서 여러분들의 선교 지원 기금이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어머니와 아이들의 건강을 돕는지를 알아 보라.